

“ 변화는 좋으나 변질은 안 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이방의 빛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미래의 시민상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행진을 더욱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은 한국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의 티를 뽑는 일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캐냄으로써 자기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공장을 세웠는데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환경오염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사람들이 호흡조차 힘들게 되었다면 공장 건설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보수와 변해야 산다는 진보가 팽팽하게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층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은 충돌 개념보다는 상호 보충개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다함께 헌법을 보수해야 한다. 그 헌법의 표준화에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는 보수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아래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입으로는 헌법을 인정하나 실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강단에서 읽고 성경이야기는 설교라는 틀 속에서 외치고 있으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교세 확장에 더 치중을 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와 젊은이를 위함이라는 명분만으로 변질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뜻대인 성경만을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사관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여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써 승리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한국장로신문 [제 1364호] 2013년 4월 2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yungwon Jang
Hymn	2
Scripture Reading	Mark 1:35-39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Prayer”
* Hymn	619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성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카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	---

“ 높이 올라야 하는 교회 ”

■ 빌 4:2-7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일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쇠약하면 세상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표류할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와 종교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누군가는 바르게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을 종교와 종교인에게 걸고 있습니다.

1.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9절). 성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입니다.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높은 산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경지를 의미 합니다. 서울교회는 그저 있는 산, 그저 많이 있는 교회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높다고 해서 모두가 산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전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 하셔야 비로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중 된 성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특정한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듯하게 속입니다. 특정한을, 또는 가치나 이념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물겨운 고난을 겪는 이유 역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서울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서는 악한 것들이 진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뱀과 사탄은 저절로 떠나게 됩니다. 천국은 사탄이 없는 곳입니다. 높은 곳은 사탄 마귀가 들끓지 못합니다.

2. 어떻게 성산에 올라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름 받은 자는 반드시 대신 죽어 줄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예물은 ‘코르반’ 이라고 하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예물은 나의 심장 즉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배는 코람데오(Coram Deo), 즉 하나님 면전에서 철저한 자기부인,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번제물과 함께 드릴 소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소제물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한 예배를 통하여 성도를 부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죽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맺는 말
 독수리가 날지 않고 땅에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비상할 때 비로소 독수리로서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지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신비한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고도를 높일 때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몸도신 교회 안에서 허전한 사탄과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수준과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다가 유리굴로 광풍을 만나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곳에서 그만 맹독을 머금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 버렸고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행 28:1-6)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독사에게 물려서 힘없이 죽고 만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 회복한다면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가진 자들입니다. 높게 날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고 계십니다. 비상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관을 신봉하거나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도권 싸움에 휘둘려 성전을 어지럽히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높은 데 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앞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서문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임상현 장로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98:1 인 도 자

찬 송 93(93) 다 합 께

기 도 최원석 집사

성 경 계 16:10-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일곱대접 재앙(2)-

영적 어둠과 아마겟돈 전쟁" ... 설 교 자

* 찬 송 325(359)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이명신 권사

성 경 막 1:16-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화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 권사회 모임/ 29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김동건(치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공민호(신경외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로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결 혼

- 최인 군(최준길, 이현자 씨의 장남)과 양혜선 양(9교구 양재인, 송숙영 씨의 장녀) / 5월5일(토) 오후2시 더휴웨딩홀 2층 더휴웨딩홀(6188-0188) / 2호선 분당선 선릉역 10번 출구

☛ 장 례

- 故 임희주 성도 (11교구 김용기 집사의 모친, 이옥선 집사의 시모) / 4월25일(수) 별세, 27일(금) 발인
- 故 김귀조 권사 (14교구 차영도 집사의 모친, 정미연 권사의 시모) / 4월28일(토) 별세, 30일(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23명	247명	233명	1,303명	17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4/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 22일	헌 금	24,285,980	
"	급 여		36,554,000
	말씀봉사비		18,010,000
"	찬양대사례비		12,350,000
	교회학교교육비		9,770,000
	찬양운영비		80,000
	선 교 비		32,747,662
	비전2020		7,080,000
	출 판 비		270,000
	지원교회		3,000,000
	인 건 비		7,943,650
	복리후생비		61,500
	통 신 비		370,830
	차량유지비		309,000
	소모품비		787,160
	수선유지비		310,290
"	식당운영비		498,090
	합 계	24,285,980	130,142,182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